



손흥민

“손흥민은 수비수를 지옥에 빠뜨리는 선수”…메시 이어 판 다이크도 엄지 척

EPL 최고 5인 드림팀에 선정
“최고의 양발…빠르고 강하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를 대표하는 수비수도 손흥민(28·토트넘)의 공격 능력을 인정했다. 버질 판 다이크(리버풀)가 자신이 선정한 드림팀에 손흥민을 뽑은 것이다.

판 다이크는 6일(한국시간) 리버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EPL 최고 5인(five-a-side team)을 선정했다. ‘파이크 어 사이드 팀’은 5인제 미니 축구팀인데, 판 다이크는 자



버질 판 다이크

민은 메시(바르셀로나)가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 톱스(Topps)와 함께 선정한 2020년

신이 생각한 포지션 벨(골키퍼 1명·수비수 1명·미드필더 2명·공격수 1명) 최고의 선수를 골랐다.

판 다이크는 소속 팀 리버풀 동료를 제외한 가운데 손흥민을 중원의 한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손흥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최고의 재능(Top Talents)’ 카드 25명의 선수에도 포함되는 등 톱 스타들이 인정하는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주목을 받은 건 판 다이크의 손흥민 평가다. 그는 “손흥민은 빠르고, 강하다. 경기장에서 수비수들을 지옥에 빠뜨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흥민은 오른발과 왼발을 가리지 않고 마무리 능력이 탁월하다”고 칭찬했다. 리버풀 수비의 핵으로서 2018~2019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큰 힘을 보탠 판 다이크는 수비수로서 사상 처음으

로 ‘UEFA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다. 자타 공인 최고의 수비수로 자리매김한 그의 평가에 무게를 두는 이유다.

판 다이크는 또 다른 미드필더에 케빈 더 브라위너(맨체스터 시티)를 지명했다. 판 다이크는 “더 브라위너에 대해 많은 말을 할 필요는 없다.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뛰어난 선수이기도 하다”고 치켜세웠다. 또 최전방에 피에르 오바메양(아스널), 센터 백에 에드리크 라포르트, 골키퍼에 에데르송(이상 맨체스터 시티)을 각각 선정했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스포츠동아

2020년 4월 7일 화요일
sportsdonga.com 10판

‘급 귀국’ 인니축구 통합사령관 신태용 감독의 ‘집콕 인터뷰’

“가족과 떨어져 외톨이 신세 답답해도 좋은 날 오겠죠!”

“U-20월드컵 겨냥 U-19대표팀
심야훈련 지옥전환 잘 따라와”
코로나로 3·4월 일정 하반기로
“잠시 멈춤…급할 것 없습니다”

2018 러시아월드컵에서 ‘월드 챔피언’ 독일을 꺾으며 큰 감동을 선사한 신태용 감독(50)은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20세 이하(U-20)와 U-23, 성인 대표팀을 아우르는 총사령관이 됐다.

다만 평가를 보여줄 기회는 없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지구촌 스포츠가 ‘을 스톱’ 됐고, 인도네시아도 지난달 초부터 정부 차원에서 각급 축구대표팀의 일정을 취소시켰다.

3월 말 태국(월경)~아랍에미리트연합(UAE·홍)과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G조 2연전을 위해 A대표팀 소집을 준비하던 신 감독으로서의 평강이 아쉬운 상황이었다. 결국 지난달 초부터 업무가 거의 없던 그와 코칭스태프는 4월

귀국, 코로나19 검진을 받고 정부 지침에 따른 자가 격리에 나섰다.

가족과의 만남도 미룬 채 경기도 분당의 자택 대신, 타 지역에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 철저한 ‘집콕’에 돌입한 그이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유쾌했다. 6일 스포츠동아와 전화통화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다. 답답해도 어찌겠나. 좋은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며 너털웃음을 터트렸다. 마침 출국 전 자카르타에서 받은 간이 검진에서 양성이나 귀국이 늦춰진 공오균 코치(46)가 몸 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알려와 걱정도 다소 덜었다.

통합 지휘봉을 잡은 지 4개월여, 짧지도 길지도 않은 기간이지만 신 감독은 정말 치열한 시간을 보냈다. 첫 임무는 내년 5월 개최될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을 준비하는 U-19 선수들을 점검하는 작업이었다. 인도네시아가 개최국 자격으로 출전할 이번 대회는 현지에서 가장 큰 정성을 들이는 무대다. 관심과 기대가 대단하다.

대회 8강을 꿈꾸는 인도네시아 U-19 대표팀은 1월 중순 발리에서 1차 강화훈련을 했고, 여기서 추려진 이들이 태국

치앙마이로 이동해 2차 훈련에 임했다. 오전과 오후, 심야까지 하루 세 차례 훈련은 어린 선수들에게 생소한 경험이었지만 나옴 없이 잘 따라왔다.

“개인기량은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한 신 감독은 멘탈과 체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쏟았다. 신체조건은 당장 좋아질 수 없으나 앞선 두 가지 요소는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신력도 흐트러진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당연히 신 감독은 선수단 환경개선에 도적적이다. 잘 먹고 잘 쉬는 데 기반을 둔 제안을 적극 설파했다. 실제로 상당 부분이 반영됐다. 소집 기간, 선수들은 5성급 리조트에 머물며 편안한 휴식을 취했다. 철저한 식단 관리에 따라 같은 재료라도 구이나 삶은 요리를 마련해 불필요한 지방 섭취를 피하게 했다.

“스텝 바이 스텝”이다. 급할 이유가 없다. 바꿀 수 있는 부분부터 조금씩 채우며 발전하겠다. 충분히 희망적이다”며 신 감독은 인도네시아 축구의 긍정적인 내일을 예고했다.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



인도네시아 축구국가대표팀 지휘봉을 잡고있는 신태용 감독은 코로나19로 전세계 스포츠가 멈추면서 4일 귀국했다. 자가 격리 중인 그는 6일 “좋은 날이 올 것”이라며 특유의 긍정적인 자세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스포츠동아DB



미네랄2종
(아연/구리)

비타민4종
(A/C/E/베타카로틴)

루테인
지아잔틴
복합추출물

중장년의 침침하고 흐린 눈엔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

눈의 중심부인 황반의 구성 성분 ‘루테인’과 ‘지아잔틴’

수정체를 통해 들어온 빛이 상으로 맺히는 부분인 황반은 시상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 눈의 중심 부분입니다. 황반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색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화로 인해 황반을 구성하는 색소밀도가 감소하면 눈이 침침해지고 흐려지게 됩니다. 중장년의 눈 건강, ‘루테인·지아잔틴 복합추출물’로 챙기십시오!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눈 건강기능식품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눈 건강기능식품인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는 식약처 1일 권장섭취량(20mg)을 충족하는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어 노화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시켜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 캡슐로 눈 건강과 기초 영양까지 케어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 뿐 아니라 기초 영양 케어를 위해 1일 권장량을 100% 충족시키는 비타민 4종(A, C, E, 베타카로틴)과 미네랄 2종(구리, 아연)이 들어있습니다.

6개월분 구매 시
정상가대비 **41% 할인**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80-330-9988